

〈제 535호〉

-주간- **광주 경영계**

## 광주은행

### ◆ 임직원 광주상생카드 6억 6백만원 구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광주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광주상생카드의 조기 보급 조성을 위해 '광주상생카드 사용하기 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광주상생카드 출시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광주은행 전 임직원은 지역민과 상생하겠다는 뜻을 모아 '광주상생카드 사용하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는 등 총 6억 6백만원의 광주상생카드를 구매했다.

## 기아차 광주공장

### ◆ 지역아동 문화예술재능 육성 챌린지콘서트 6년째 후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은 지난 17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문화예술 재능 육성과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2019 기아 챌린지 콘서트'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후원에 나섰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사회공헌 활동인 '기아 챌린지 콘서트'는 지역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프로그램

으로,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청소년들에게 진로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줄 멘토 강연과 토크 콘서트로 진행된다.

## 금호타이어

### ◆ 금호타이어, 놀이예술교육 활성화 '시동'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전대진)는 지난 17일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금호타이어-광산구-시교육연구정보원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 자리에는 금호타이어 전대진 대표이사, 김삼호 광산구청장, 이상채 시교육연구정보원장을 비롯한 성덕중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로 찾아간 굴링'이 지역사회 기반의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민·관·학 공동프로젝트 '굴링'은 놀이를 통한 예술교육 활성화로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놀이 프로그램으로, 금호타이어는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폐타이어를 지원하기로 했다.

## 두메푸드시스템

### ◆ 두메푸드시스템-아워홈 업무협약

두메푸드시스템(대표이사 김갑주)과 (주)아워홈은 지난 16일 아워홈 호남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중소-대기업 간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종합식품 대기업 (주)아워홈(연매출 약 1조 8천억) 호남센터가 광주지역 식품 중소기업 두메푸드시스템과 경영 노하우 및 인프라 등을 공유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사회 공헌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 무진기연

## ◆ 세계시장 선도기업 도약

- 중기부 '2019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 원자력 분야 세계적인 기술력 보유
- 맞춤형 지원 해외 경쟁력 확보 발판

광주지역 대표 강소기업인 (주)무진기연(대표이사 조성은)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의 맞춤형 육성 사업에 선정,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무진기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19 글로벌 강소기업 200'에 선정됐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기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금융기관이 지역의 강소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집중 지원하는 협력 모델이다. 중기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선정해 해외마케팅, 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

이번에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된 광주 하남산단에 자리한 (주)무진기연은 지난 1990년 설립, 30여년 역사를 지닌 지역 대표 강소기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설비 유지 보수 업체였던 (주)무진기연은 원자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기술 개발 위주로 시스템을 바꾸고 과감하게 설비 투자를 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모범 사례로 꼽혀왔다.

현재는 63명의 종업원들과 함께 원자력 보조기기와 연료취급·저장설비 등을 생산하며 해마다 매출 신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지난해에는 90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 원전 메인 및 보조기기 6개 패키지를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매년 성장을 거듭해 온 (주)무진기연이 '글로벌 강소기업 200' 선정으로 4년 동안 맞춤형 집중 지원을 받게됨에 따라 글로벌 선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9 글로벌 강소기업'에 광주에서는 (주)무진기연을 비롯해 고려정밀(주), (주)아이지스, (주)현성오토텍, (주)현성테크노 등 5곳이 선정됐다. 전남 지역은 아룡기공(주), 라인호(주), (주)삼우에코, 한영타이어(주), 승진전자산업(주) 등 5개 업체가 뽑혔다.



## 보해양조

### ◆ 전남도와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지난 18일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보해양조는 대표 제품인 잎새주 라벨에 홍보문구를 넣어 '제로페이'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 오텍캐리어

오텍캐리어(대표이사 강성희)는 지난 18일 전남장성군 소재 군사교육기관인 육군보병학교(상무대)에서 현병택 오텍캐리어 사장과 김만기 육군보병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장병의 환경개선을 위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자사 제품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현병택 오텍캐리어 사장과 김만기 육군보병학교장이 '오텍캐리어와 육군보병학교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육군보병학교는 육군 초급간부 양성과 기성간부를 위한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대표 부대로 오텍캐리어는 지난 2015년 육군보병학교와 '1사1병영' 협약을 맺고 5년째 부대와의 상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



## II. 광주경충 소식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지난 15일 조선대학교 ECO부품 설계전산실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일환으로 관계자 및 교육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관리

및 설계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4월 15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는 본 교육과정은 광주지역 스마트 팩토리 보급·확산 정책과 연계한 청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 및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CAD 및 CATIA, 품질관리, 공정관리 등 전공심화교육과 공통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수료 후에는 관련분야로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 사무국 일지 (4.15 ~ 4.19)

4.15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맞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개최</li> <li>●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협의회 발족식 참석</li> </ul>	4.18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용역 최종보고회 참석</li> </ul>
4.16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일경험드림 관리자 회의 참석</li> </ul>		
4.17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참석</li> <li>●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광역담당자 회의 참석</li> <li>● 북구청 노사민정협의회 참석</li> <li>● 청년일경험드림 직무기반 교육</li> <li>●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간담회 참석</li> </ul>	4.19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38회 금요조찬포럼</li> </ul>



### <1438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4월19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정철웅 첨단 미르치과병원 대표원장을 초청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치아관리 방법과 임플란트 알기>란 주제로 제1438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치아는 우리의 건강이나 얼굴표정의 인상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치아가 건강해야 한다. 치과 질환에는 두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다. 충치와 치주질환인데 플라그와 치석이 치주 질환의 큰 원인이다. 치과 질환은 유전적, 환경적, 습관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데 치주질환 으로는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고 시리거나 음식물을 씹을 때 아프다.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입 냄새가 심하며,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아사이가 벌어지고 치아가 내려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치주질환은 약으로만 치료가 될 수 없다.

잇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잇몸을 튼튼하게 치료를 해야 한다. 시중 약국에서 권하는 유명 약들이 있는데 그것은 잇몸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 보조제일 뿐이다.

치주치료는 심미성형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가 있는데 우리나라 임플란트 임상 수준은 세계적이라고 평가 받는다. 임플란트 주위 질환도 치주질환과 마찬가지로 진행양상이 비슷하여 치료와 예방에도 관리가 필요하다.



## 1. 노사 동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4. 15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 발표

- 금번 공익위원안은 단결권과 관련해 '18. 11. 20 발표한 공익위원안 내용을 유지
- 금번 안은 전체적으로 노동계 요구가 대거 수용됐으며, 경영계가 주요하게 요구했던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내용은 미반영

[ 참고 1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공익위원 최종안 주요 내용

단결권 관련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관련
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②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③ 공무원·교원의 노조가입 범위 확대 ④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선 ⑤ 특수형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방안 모색	① 파업시 직장점거 제한 ②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3년) ③ 대체근로 금지규정 유지 ④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정비 ⑤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처벌규정 정비(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

- 경사노위는 4. 19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ILO 핵심협약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논의 경과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
- 노동계는 금번 공익위원안이 파업시 직장점거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ILO 핵심협약에 대한 '先비준·後입법' 촉구
  -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은 명백히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민주노총은 "노조 공격권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
- 고용부는 4. 17 ILO 핵심협약 비준은 헌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경총은 4. 15 성명을 통해 경영계 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공익위원안에 유감을 표명하고 노동계 편향적인 경사노위 논의 과정의 문제점 지적

- 경총은 향후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제도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경영계 입장을 개진해 나갈 계획

#### ■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등 주요 노동법안 논의 지연

○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여야가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면서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

※ 4월 임시국회는 4. 8 개의

○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 존재

- 문재인 대통령은 4. 16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의 국회처리를 당부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 17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주휴시간 제외를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으로 정하고 4월 국회 처리 강조

○ 임시국회 일정 조율이 지연되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법안의 4월 임시국회 논의는 당분간 난항 예상

#### ■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대(對)국회 투쟁 수위 고조

○ 민주노총의 집회·시위 현장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경찰관 폭행, 국회 무단 진입 등 불법행위 발생

- 경찰은 민주노총이 주최한 3. 27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등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불법행위와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 등 관계자 8명에 대해 4. 12 경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4. 19 2차 출석을 통보한 상황

- ※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 등이 경찰 출석을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경찰은 4. 13 민주노총 간부 4명(김명환 위원장 미포함)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에 압수·수색 실시
- ※ 민주노총은 4. 13 성명을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고 강경투쟁 예고

#### [ 참고 2 ] 최근 민주노총 불법행위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전국노동자대회」 (3. 27)	▲ 국회 앞 도로 무단점거, 경찰관 폭행
대(對)국회 집회 (4. 2 ~ 3)	▲ 일부 조합원 국회 본관, 의원회관 무단 진입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지역구사무실 점거
	▲ 김명환 위원장 등 일부 조합원 국회 진입 시도 ※ 김명환 위원장 경찰 연행

- 민주노총은 4. 18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공부문 공동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투쟁 분위기 조성에 주력

#### ■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4. 16 산별교섭 상견례 개최

- 금속노조는 2019년 임단협에서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하청업체 노동권 보장 등 요구

※ 금속노조는 산별교섭 타결을 압박하기 위해 7 ~ 8월 2차례 시기집중 투쟁 추진 예정

-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총액임금 기준 4.4% 임금인상 등 요구

- 한편, 올해 금융분야는 임금교섭만 진행하는 해로 금융노조는 「중앙노사위원회」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에서 단협사항인 근로자이사제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 가이드라인 제정 등 요구

[ 참고 3 ] 금속·금융노조 2019 임단협 주요 요구

구분	주요 내용
금속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기본급 123,526원 인상</li> <li>※ 현대·기아차는 월 기본급 91,580원 + 격차해소 특별요구</li> <li>월 31,946원(총 123,526원) 인상 요구</li> <li>▲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li> <li>▲ 하청업체 노동권 보장</li> <li>▲ 일터 괴롭힘 금지</li> </ul>
금융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 기준 4.4% 인상</li> <li>▲ 저임금직군 임금은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인상</li> <li>▲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임금 개선</li> </ul>

## 2. 판례 동향

종업원 등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감독상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법 제94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결정).

### 1.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자동차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이 사건 회사 소속 임직원들은 부품제조 협력사 내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했다는 이유로 2017. 5. 공소제기됨.

- 노동조합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그 소속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인해 함께 공소제기 됨.

#### [참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근거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이 사건 회사는 위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청을 신청했고,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2017. 10.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 2. 판결요지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 (이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임.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참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

##### [심판대상조항]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관련조항]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이하생략)

-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됨.
-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에게도 노동조합법 제90조가 정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임.
  - 그 결과, 법인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됨.
-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됨.

-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 3. 시사점

- 이번 결정은 형벌부과가 책임주의원칙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인정한 것임.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해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지배·개입 행위(제81조 제4호)에 관한 양벌규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 해당 조항은 법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주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됨. 끝